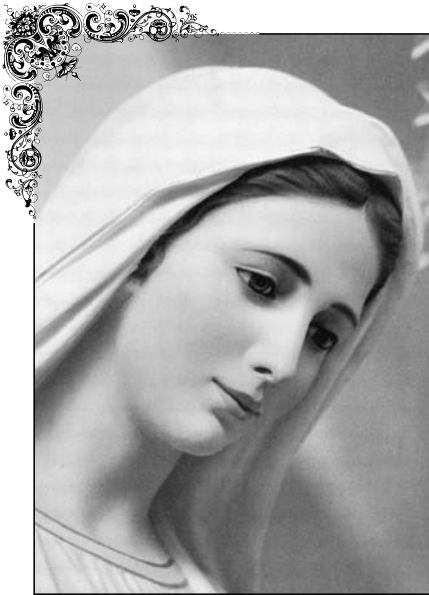




MEDUGORJE
평화의
모후

2016 제72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너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다.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는 더욱 부족하구나. 너희는
갈 길을 잃고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라.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 상의 죽
음으로써 너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 어린 아이들아, 마음을 다한 기도
로 돌아 오라고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기도안에서 너희 존재
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6년 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목차

-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4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주었다!"
요조 죠브코 신부 ofm
- 6 "이 사순 시기에 너희의 마음을
하느님의 자비로 활짝 열어라."
류보 쿠르토 비치 신부
- 7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교황 프란치스코
- 11 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스테파노 고펀비 신부
- 12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를 가지고 가거라
이반드라 기체비치 / 발현 목격 증인
- 16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신학자로 개종한 이유
스캇 한 가톨릭대학 교수
- 24 절름발이 소녀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에 참석하고 치유되다.
Silvia Buso
- 27 기도와 용서의 힘
이마폴리/ 르완다 대학살의 생존자
- 35 재정보고 및 심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 신부님을 위하여...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영혼을 위하여...
 - 연옥 영혼들과 가장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 000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
 -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딸 ○○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남편이 술 끊고 세례 받게 해주세요.
 - 오빠의 건강과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하여...
 - 가족 및 친척의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교회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00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지혜를 주세요.
 - 가정의 평화와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 큰 딸 부부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2015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부부에게 영육간에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 박해받는 모든 Christian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직장을 구하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되도록
 - 맡겨주신 5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저와 모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00이가 신장이식을 빨리 받아서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 두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1년째 Homeless 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간 손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00 이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 두 딸이 하루속히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새로운 집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은총주시길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훌륭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소서.
 - 아프리카 선교사명중에서 주님의 곁에 간 딸 데레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안에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새로하는 사업에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도록 주님과 성모님 함께하여 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하느님을 믿지않는 남편과 위기에 있는 저의 결혼생활을 위해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 주님,힐탈 사업체와 운영자들을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소서,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주었다!"

요조 죠브코 신부 ofm



오, 주님 이 아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지낸 이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오, 온종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쁨과 평화속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십시오. 멀리에서 당신의 사랑을 찾아 기도의 학교 메주고리에로 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메주고리에 순례를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성모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처럼 지낸다면 큰 잘못입니다. 모든 것들을 제 위치에 놓기 위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순례를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교황님을 만나거나 아씨시를 찾는 것이 더 쉬울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온다는 것은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메주고리에로 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기때 이 뜻을 알고 그들은 스스로 오는 곳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의 그림들이 있는 성당들을 보러 가는 사람들처럼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메주고리에 수 년간 매일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곳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받아들여 함께 기

도하고, 단식하며, 성체성사를 생활화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을 배우고 느끼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모님 발현의 은총과 수 많은 메시지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연 사람들 모두는 이 은총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다한 기도안에서 혼인성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순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메주고리에 현존하고 계시는지를 은총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책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곳 메주고리에에서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순례자들의 평화를 빼앗고 내적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예민하게 만들어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도록 유혹합니다.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메주고리에에서는 기도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관광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집시와 공산주의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오시는 메주고리에에서 살더라도 눈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성모님께서 발현 두 번째날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여 불렀다.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성모님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즉시 당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신의 내적 기쁨과 신앙을 주시고 평화를 나누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회개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메주고리에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우리들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에이즈 혹은 암이라든가 어떤 불치병으로 죽는 것만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혼인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나 제대 앞에서 서약한 것에 충실치 못한 사람들도 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죄는 항상 죽음을 가져 오는데 육체와 정신의 죽음까지도 불러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의 무신론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이 믿지 않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나약함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오 년전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프란치스코회의 사제로 서품되기 전 그분의 한 아들이 독일에 있는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6 개월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병약해서 균에 전염될 것을 염려한 의사들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더 이상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의사들은 부모에게 "당신들의 아들은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과 단식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온 몸이 흰돌로 (기브스를 표현한 것임) 감싸여 혼수상태가 되어 있는 아들을 보고 말없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 라고 부르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를 보고 너무나 놀란 의사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아들에게 전하자 아들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맥박이란 무엇인가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이마에 손을 얹고 성모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분이 내 아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메주고리에 순례를 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이곳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신앙과 믿음을 치유해 주는 병원입니다. 이곳은 기도와 사랑과 신앙과 평화를 위해 늘 커다란 초를 켜두고 기도합니다.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성당과 산위, 혹은 집에서 매일매일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시내물과 강을 거쳐 거대한 바다 속으로 가는 것처럼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바다속으로 흘러 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입구가 꼭 막힌 병같은 모습으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곤 '나도 메주고리에에 갔다 왔어' 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없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없는 형식적인 순례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개로 닫혀진 병에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이 텅 빈 병은 동등 바다 위에 떠있다가 바람이 불면 바위나 암초에 부딪쳐 산산히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 것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에 자신의 구원과 내적 성장을 위해 찾아 왔다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 메주고리에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있을 필요도 없고 "나는 베르가모 (이탈리아 롬바르다주에 있는 북쪽도시)에서 왔는데, 주님, 도데체 몇 키로나 되는지 아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 왔으면서 뚜껑닫힌 병처럼 깨지지도 않고 닫힌 채 있다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이쿠, 세상에 맏소사! 호기심으로 찾아와서 아무런 변화나 체험도 없이 돌아가는 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뿐이지요... 성직자들... 메주고리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식과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메시지를 믿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던 주교님들도 메주고리에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주고리에 순례를 온 것은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성모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먼저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성모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M**



"이 사순 시기에 너희의 마음을 하느님의 자비으로 활짝 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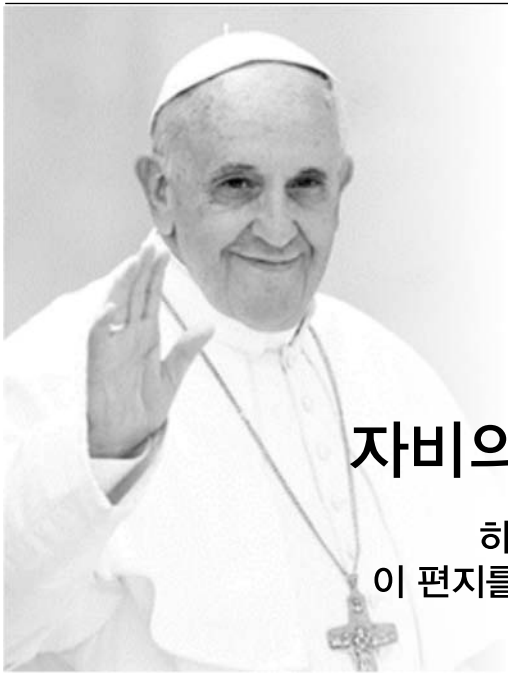
류보 쿠르토 비치 신부

2007년 2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순절인 지금 하느님의 자비에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죄의 굴종으로부터 너희 각자를 해방시키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이 시기를 잘 활용하고, 고해성사 중에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해라. 그분의 피로 너희 모두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를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자유는 너희의 약점임을 잊지 마라. 그러니 진지하게 내 메시지를 따라 살아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하셨을 때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 16) "이 사순 시기에 너희의 마음을 하느님의 자비으로 활짝 열어라." 라고 동정 마리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자비심안에서가 아니라면, 인간은 어디에서 구원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것이 왜 힘든 것인가? 하느님 자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원뿌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죄인이라 느끼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하느님 자비를 간청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한편, 세상과 인간 개개인은 자비와 용서, 사랑을 찾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당신 창조물을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반면, 죄는 그대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 우리와 우리 가정은 매일같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거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치고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 대항할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만 치유가 시작되고 해방이 시작됩니다. 이 또한 인간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는 자유를 향한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자주 고백성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께서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고백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라는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평화, 자유, 회개로 가는 길에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의 자유는 너의 약점이다." 라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하거나, 자유를 잃거나, 사소한 행복이나 쾌락, 죄가 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 자유를 팔아버릴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즉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선물이며, 짐이고 책임입니다. 그런 자유 안에서는 우리는 매순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아무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길 위에서는, 우리는 혼자 아니며, 홀로 내버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와 평화,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천상 어머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M** (2007년 2월 26일 메주고리에서)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 (Misericordiae Vultus)

하느님의 종들의 종 로마 주교 프란치스코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에게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빕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는 이 말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나자렛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나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자비가 풍성한"(에페 2,4)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 하느님"(탈출 34,6 참조) 이라고 당신 이름을 알려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본성을 끊임없이 보여 주십니다. 구원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때가 차자"(갈라 4,4)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뵈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입니다 (요 한 14,9 참조). 나자렛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2. 우리는 언제나 자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신비는 기쁨과 고요와 평화의 샘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 줍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비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근본 법칙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 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3.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자비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자신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뚜렷한 표지가 되도록 부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특별 희년에 신자들이 더욱 힘차고 효과적인 증언을 하여 교회에 은총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년은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됩니다. 이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의 맨 처음부터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죄악에 얽매인 채로 버려두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마리아를 선택 하시어 인간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에페 1,4 참조). 무거운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완전한 용서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언제나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므로 그 누구도 용서하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저는 성문(聖門)을 여는 기쁨을 누릴 것 입니다. 그날, 성문은 자비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위로하시고 용서 하시며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 제3주일에 로마 주교좌 대성당, 곧 성 요한 라테라노 교황 대성전의 성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교황 대성전들의 성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일에 저는, 모든 개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어머니 교회인 주교좌 대성당이나 공동 주교좌 대성당, 또는

특별히 중요한 성당에서 자비의 문을 열고 성년 내내 열어 두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순례지에서도 교구장 주교의 권위로 자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서 순례자들은 마음으로 은총을 체험하고 회개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개별 교회는 직접 참여하여 이 성년을 특별한 은총의 때와 영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와 더불어 개별 교회에서도 온 교회의 가시적 친교의 표징으로 이 희년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4. 제가 12월 8일을 선택한 것은 이 날이 교회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이 되는 이날 성문을 열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공의회를 생생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교회는 역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성령 강림 때처럼 공의회 교부들은 하느님에 대하여 동시대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온한 도성처럼 감싸주던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복음화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임무는 열정과 확신으로 신앙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을 각성하였습니다. 요한 23세 성인이 공의회를 시작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혔던 뜻 깊은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격함이 아닌 자비의 영약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가톨릭 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 신앙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



량이 넘치는 모든이의 어머니, 인자하고 인내하는 어머니, 갈라져 사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오로 6세 복자는 공의회를 마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공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옛 이야기가 우리 공의회 정신을 이끌어 준 모범이자 규범이었습니다. ... 공의회는 현대인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류는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도 오류를 거부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오류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공의회는 분명히 정신을 혼란시키는 질병을 깨닫고 위로가 가득한 구원의 영약을 가져다주었으며 불길한 징조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의회는 풍요로운 가르침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온갖 나약함을 지닌 인간, 갖가지 요구를 지닌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가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앞에 놓인 직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순례하는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굳게 믿으며 저는 성문을 열고 지나갈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도록 이끄시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자비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

5. 희년은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끝날 것입니다. 그날 성문을 닫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주신 성삼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교회의 삶과 모든 인간과 무한한 우주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며 미래의 풍요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자비를 아침 이슬처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자비가 넘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미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자비의 향유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모든 이에게 전해지기를 빕니다.

6.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바로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이 드러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전례의 가장 오래된 본 기도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섭리하시는 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현존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로 자주 하느님의 본성이 묘사됩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징벌과 파멸보다 앞서는 구원 역사의 많은 순간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시편은 주님의 위업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시편 103[102], 3-4).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주님 자비의 구체적인 표지를 보여 줍니다.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 버리신다"(시편 146[14

5], 7-9). 시편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신다"(시편 147[146-147], 3,6).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애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

7.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는 하느님의 계시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 136편의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자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심오한 구원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시편처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을 뛰어 넘어 모든 것을 영원한 사랑의 신비 안으로 들여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길 아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바 대찬양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전례 축일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에 이 자비의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마태 26,30) 올리브 산으로 갔다고 말했을 때 이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당신과 당신의 파스카 희생에 대한 영원한 기념제로 제정하시면서, 자비의 빛이 상징적으로 이 최고의 계시 행위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비의 지평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 될 위대한 사랑의 신비를 의식하시며 수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날마다 바치는 기도에서 이 찬미의 후렴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 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 줍니다.



8.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자비로운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라는 임무를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8,16). 이는 요한복음사가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예수님의 온 삶에서 눈에 보이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사랑, 자신을 거저 내어 주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그분께서 맺는 관계는 각기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비를 보여 줍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비로 드러납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비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군중을 보시자 그들이 지도자 없이 길을 잃고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는 것을 알아 채시고 무척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마태 9,36 참조). 그분께서는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데려온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마태 14,14 참조),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마태 15,37 참조).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로 당신께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절실한 바람을 채워 주셨습니다.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나인의 과부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울부짖는 어머니의 커다란 고통을 보시고 무척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습니다(루카 7,15 참조). 게라사인 지방에서 마귀 들렸던 사람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

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마르 5,19). 마태오를 부르신 것도 자비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마태오를 바라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눈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며 세리인 그를 뽑아 열 두 사도 가운데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베다 성인은 이 복음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오를 자비로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icordia atque eligendo)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저는 이를 제 문장에 넣었습니다.

9. 자비에 관한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온갖 반대를 물리치시고, 연민과 자비로 끝까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본성으로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 중에 세 가지 이야기, 곧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과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루카 15,1-32 참조). 이 비유들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기쁨에 넘치시는 분으로 그려 집니다. 특히 하느님께서서는 용서를 해 주실 때에 더욱 기뻐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드러나며, 마음속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고 용서를 통하여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M** (<http://www.cbck.or.kr>에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291. 84. 7. 5. 발드라고네(산마리노, 이탈리아).
'마리아사제운동' 이탈리아어권 사제들과의
'다락방' 모임 형태의 영성수련(피정)



사랑하는 아들들아, 형제애를 나누며 기도하는 이 지속 다락방에 너희가 천상 엄마인 나와 함께 모여 있으니, 내 마음이 여간 흡족하지 않단다! 나는 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다. 내 티없는 성심은 예수께서 당신의 사제적(희생) 제물을 성부께 바치시고자 늘 원하신 제대이다. '성부의 말씀'이 내 동정의 태중에 내려 오시어 당신 신성을 다 내어 놓으시고 (*필립 2,7 참조) 인성의 첫 씨앗을 취하신 '육화'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순간부터, 티 없는 내 성심은 '제대'가 되었고, 이 제대에서 내 성자 예수님의 사제로서의 첫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제이며 동시에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바치시는 그 항구적 제헌의 매 순간을 나는 늘 그분과 함께 있었다. 가난한 탄생에서부터 피난지에서 보내신 유년기까지, 천한 노동과 순종적인 섬김으로 보내신 청년기에서부터 짧지만 너무나 많은 시달림과 몰이해 속에서 보내신 공생할기까지, 마침내 피투성이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고통스러운 완성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께 사랑으로 바쳐지는, 끊임없는 사제적 활동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이 제헌의 순간마다 예수께서는 당신 '어머니'도 함께 고통 받으며 스스로 제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구원 사업을 돕는 협력자, 진정한 공동 구속자가 되었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도 '사제'이신 예수님의 '엄마'이다. 그러니 아들들아, 이제 너희도 이해하겠지만, 내가 너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느끼는 이유는 위대한 선물인 '사제직'이 너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루의 모든 순간에 너희 곁에 있다. 너희의 하루가 끊임없는 사제적 제물이 되어 성부께 온전히 바

쳐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나 일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버림받을 때나, 내가 너희 곁에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를 새롭게 하는 '미사 성제'를 집전할 때마다,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지금도 너희를 통해 당신의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항상 모든 '제대' 옆에 있다. 티없는 내 성심 안에서 너희와 더불어, 우리 구원의 값진 '희생 제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쳐 드리기 위해서이다. 오늘날에는 '거룩한 미사'의 '제사'적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 흐르는 제사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갈바리아에서 이루신 희생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니 말이다. 지금은 나의 시대이고, 아들들아,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너희의 항구한 사제적 활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길러 줄 수 있도록 온순하게 자신을 맡겨다오. 지속 '다락방' 모임 형태로 '영성 수련' (피정) 을 하는 이 기간 동안 - 이런 다락방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나의 바람이거니와 - 나는 너희의 제헌을 위해 너희를 부드럽게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를 기다리는 희생제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어린양 들처럼 나의 양 우리로 모아들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기뻐하며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내 사업에 협력해 주기 때문이니, 이는 티없는 내 성심의 제대에서 너희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업이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펀 신부님께서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를 가지고 가거라"



질문 : 성모님께서 어떤 모습이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반 :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회색 드레스에 하얀 베일을 쓰셨고 푸른 눈을 가지셨으며 붉은 뺨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구름 위에 떠 계시며

별이 있는 왕관을 쓰셨습니다. 성모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나 묵주기도로써 성모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성모님은 오후 6시 40분경에 오시며, 성모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는 성모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오시는 순간에 저는 무릎을 꿇으며, 그 이후엔 성모님 외에 제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모님은 기쁜 모습으로 오셔서 먼저 "나의 자녀들아, 예수님을 찬미하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며, 그럴 땐 인사를 하신 후,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사람들이 가져온 성물을 축성하시고 나면 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아픈 이들과, 또는 특별한 청원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 성모님

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때때로 세상과 사제들, 가정,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주로 전 세계를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발현이 끝나면 그것을 적어서 곧 전 세계에 전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 마지막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를 가지고 가거라." 하고 인사하시며 십자가의 빛 속으로 사라지십니다. 저는 성모님을 여러분들을 대하듯 3차원적으로 뵈고 말씀을 나누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의 나이를 물어보신다면 대략 26~27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을 만질 수 있다고요?

이반 : 만일 제가 원한다면 성모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성모님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성모님께 데려올렸고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의 눈을 주시하였는데, 그 상황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는 7살, 3살, 16개월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계셨더라면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정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가족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묻지는 않았습니니다. 그것을 표현하기에 너무 어렵다
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
신들이 받은 그 선물을 평생 감사히 여기며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세계는 이라크를 비롯하여 곳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말
씀하시던가요?**

이반 : 이 마지막 21세기를 통해 성
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나의 아들께서
너희를 도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 평
화, 평화, 평화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녀들아, 이 세상과 인류는
대단한 위협과 파멸로 향하고 있단다" 라고 말
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모님 발현 초기부터 성모
님께서 평화를 몹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는 기
도와 더불어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21세기에 가장 촉구하시
는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
하고,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열며, 또한 성령께 우리를 열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기도의 메시지 다음으로 성모님
께서는 우리를 회개로부터시며,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
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이반 :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
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
려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어둠을 말
씀하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희망의 어머니로서 오
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길 원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지친 세상과 교회, 지친
가정과 청소년들을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려
고 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강해져야 교회가 강해지고, 너희가 약
해지면 교회도 약해진단다.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자녀
들아, 이 세상과 인류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하지만 너희는 변화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로 돌아 오
너라."

**질문 : 요즘 교회가 성추문등으로 어
려움을 받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이
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 성모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니다만 간접적으로 이
지향으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요청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
니다. 단지 사제들뿐만아니라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도 염려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이혼과 낙태, 그리고 집 잃은 아이들
을 말입니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니
다. 그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모
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좋은 것으
로 우리를 이끄시며 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복
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족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미사참례를 하고 고백성사를 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
십시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
랑하십시오.

**질문 :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명백히 태도를 밝혔습니니다. 성
모님께서서는 동성애가 하느님 뜻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 결코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강해져야 교회가 강해지고,
너희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진단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언제나 기도하실 뿐입니다.

질문 :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천국은 보여주셨지만, 지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옥을 보여주시고자 하였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천국을 보았을 때 저는 성모님과 함께 있었으며 사람들이 걷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란 옷과 하얀 긴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략 35세에서 40세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천국은 끝이 없었고 울타리도 없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3~4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저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질문 : 교회가 메주고리예를 완전히 인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신이나 성모님께서는 실망하시지는 않는지요?

이반 :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 볼 것이다."

질문 : 최근에 많은 사람이 성모님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성모님께서 가짜 예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 성모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쭙보지 않았습니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성모님을 뵈었다고 말합니다. 저의 입장은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 드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질문 : 일부 사람들이 목격증인들이 메주고리예를 통해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반 :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 에이즈는 하느님의 징벌입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 3백만 명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아주 많은 숫자죠. 그것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돕지 못해 일어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불치병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이반 : 많은 사람을 만났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든 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질문 : 세상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반 :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가 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오고 그것이 다른 일들을 파생시킵니다. 하느님을 외면한 모든 말과 지혜는 실패합니다. 모든 중심에 하느님께서 계시야 하고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고 그러면 세상은 평화롭게 됩니다.

질문 : 호주여행에서 희망하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단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가 성모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타 종교인들의 회개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고 있지만, 어머니로부터는 매우 멀리 있었던 그들이 비로소 성모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도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에 참례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성모님과 하느님 안에서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때이며,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때이며,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문 : 성모님을 볼 수 있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반 : 저는 이러한 일들을 꿈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16세까지 내성적이고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곤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빨리 기도가 끝나기를 바랐었습니다. 처음 발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되묻곤 했습니다. "왜 나일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제 평생 이것은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며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압니다. 매일 5-10분 혹은 30분씩 성모님을 뵙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 : 보스니아 전쟁 때 메주고리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지요?

이반 :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반 : 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1994년 결혼했고 아내는 보스톤 출신의 미국인이고 세 아이 -크리스티나, 미카엘라, 다니엘- 가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은 메주고리에서 지내고 6개월은 보스톤에서 지내며 겨울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미국에서 지냅니다. 저희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21년간 저의 삶은 평화, 사랑, 기도의 학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 가정에 가져옵니다. 저는 사람 가운데 도구로서, 성모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메신저로, 살아있는 표징이 되고 싶습니다.

질문 : 사람들이 당신을 유명인사 취급을 하지는 않던가요?



이반 : 원치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16세 때의 저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이반 : 우리 모두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반 :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 말만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와 기도가 있어야 가정과 세상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날 사람들은 영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천상의 약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시고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단지 사제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도 염려하십니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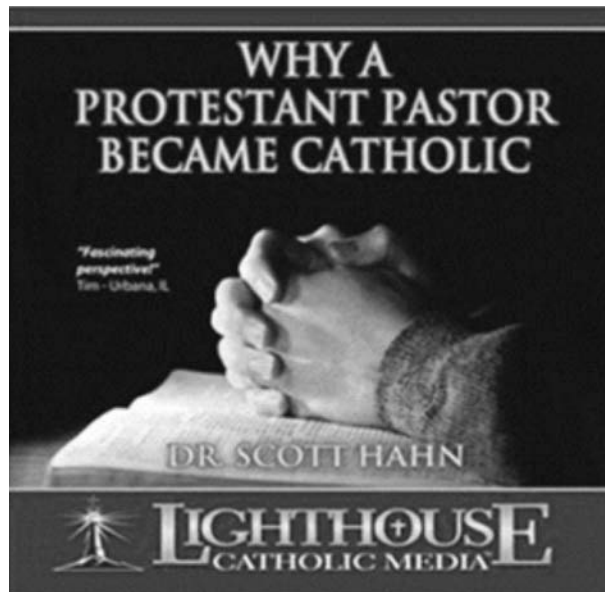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자문위원단 : 오세완 신부, Fr. John McFadden,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틀
웹관리자 : 남 미카엘라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이 데레사, 최 레지나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성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신학자로 개종한 이유

오하이오 가톨릭 대학
스캇 한 교수의 개종 이야기



개신교 신학교 교수이며 열렬한 장로교 목사였던 스캇 한교수는 가톨릭의 진리가 성경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 천주교 신학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후부터 가톨릭 교회의기도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국제적인 천주교회 옹호론자가 된 그의 신앙 여정에 대한 체험담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로마 천주교 신자가 됐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안에서 역사 하셨는지에 대해 나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놀랍고 기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 하는 이야기를 떠 올립니다. 예쁜 젊은 여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가장 나쁜 방법을 사용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용기를 얻는데 수 주가 걸렸고 마침내 그가 데이트를 신청하자 그 여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청년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그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긴 시간 샤워를 하고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을 한 후 그녀를 놀래 주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직원에게 1파운드짜리 초콜릿과 2파운드, 3파운드짜리 초콜릿을 각각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허리를 굽혀 초콜릿을 꺼낸 다음 "왜 3가지 다른 사이즈의 초콜릿을 사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특별한 데이트를 합니다. 아주 예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만약 그 여자가 데이트 중에 내가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면 1파운드짜리를 주고 영화 보는 중에 그녀의 어깨를 슬쩍 안

았는데 그대로 있으면 2파운드짜리,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키스를 하게 하면 3파운드짜리를 줄 겁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이런, 교활한 늑은이 같은 사람, 좋은 시간 보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잔뜩 긴장을 하고 아가씨 집 앞에 30 분이나 일찍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나오더니 "지금 우리가 막 저녁을 먹을 참이었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제가 같이 있어도 돼요?" 하고 말했고 "좋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고 청년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청년은 식탁에 앉자 "제가 식사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묻자 그들이 "물론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를 5분도 넘는 10분 동안이나 하고 마침내 아멘! 했습니다. 그런 후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어색해 했으며,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 아가씨는 청년에게 "당신이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당신은 왜 아버지가 약국에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했던 놀랄 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 천주교회가 모든 자녀들이 그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체험

삶은 예상치 못했던 놀랄 일로 가득합니다.



스캇 한 교수와 그의 부인 김벌리

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합니다. 폴톤 선 대주교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미국에는 실제로 천주교회를 증오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되고, 수 천만 명이 천주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못 알면서 증오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저는 제가 그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천주교회를 반대 해왔고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이 천주교를 떠나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기도 끝에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십대에 예수님께서로 회심

Teenage Conversion to Jesus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회심은 고등학교 때 시작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깊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를 자주 가지 않았고 저는 별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저에게 '영 라이프'(젊은 삶)라는 단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단체로 책이라는 사람이 특히 저와 친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초기에 저는 결심을 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속으

로 여주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달라고 청했고 그분께 저의 죄를 모두 드렸고 용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친구도 많이 포기해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안의 참된 친구들을 주심으로써 더 많이 보상해주셨습니다. 책은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주었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그 안에 잠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쯤 저는 성경을 2-3번 통독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몇 가지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경책을 읽는 것 외에도 책은 마틴 루터의 책들과, 존 캘빈의 책들이 있는 자신의 서재를 저에게 개방해 확신에 찬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1500년까지는 천주교가 택한 근거없고 이교도적인 행동 때문에 성경이 중세에 거의 사라질 뻔 했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확신으로 천주교 신자 친구들에게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보도록 도와 주었고 그들에게 성경에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며 구세주로 받아 들이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이런 난센스들, 성인들, 연옥 등등의 여러가지 신심들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며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청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천주교신자인 한 소녀와 사귀고 있었는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가 계속 천주교 신자로 남게 되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주 두꺼운 책인 로레인 보트너가 쓴 로마 천주교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천주교를 반대하는 성경과 같은 책입니다. 4백 50 페이지가 넘는 그 책은 천주교회에 대한 거짓말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런 줄을 몰랐기에 좋은 신앙심으로 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해 여름에 저에게 "그 책 고마워요, 이제 다시는 미사에 안 갈 거예요." 라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과 수치감

을 느끼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천주교를 반대하는 많은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대위에서 흠송하는 빵조각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불쌍한 이교도들이니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천주교신자들을 그들의 신념과 종교적인 양식에 묶는 무류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면, 그는 독재자이며 영적 독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무류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 제가 보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주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양가 중에서 유일한 천주교신자는 사랑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하시고 아주 겸손했으며, 매우 거룩하셨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열심한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은 그분의 종교유품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책과 미사책을 훑어보았고 평소에 할머니가 기도하던 목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할머니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얼 뜻하는 것인지 의아해하면서 목주알을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목주알들이 할머니를 묶고 있는 사슬이라고 생각되어 이제는 할머니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겠다며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에 대한 저의 두 번째 견해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거짓에 둘러싸여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를 할뿐 아니라 신학도 공부하겠다고 결심 했습니다. 그 결심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연구 논문을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믿음만으로, Sola Fide" 라는 졸업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라틴어 문구로 믿음만, 혹은 오직 믿음 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내건 문구였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지도 모르는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의로워 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에 따라 교회가 서 있거나 무너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무너졌고 개신교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논문을 상당한 연구를 한 끝에 확신을 가지고 썼고, 만약 이 점에 대해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것에 있어 잘못될 것이며, 또한 믿음에 무엇을 덧붙이면,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생활 / College Years

대학 4년 동안 철학, 성경신학, 경제학 등 3개를 전공하면서 동시에 영 라이프에서 사목도 했습니다. 저는 '영 라이프'가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감사의 보답을 하고 싶어서 4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이들을 전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중에는 천주교신자, 고등학생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불쌍하고 무지몽매한 천주교 신자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 성경 공부를 지도한 후, 저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 아니라, 제가 만난 천주교 고등학생들은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두 명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 신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할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

"천주교 신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거짓에 둘러싸여있다, 그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마틴루터로부터 배운 복음을 통해, 즉 반 천주교적 관점에서 보도록 이끌었을 때, 그 젊은 이들은 마치 물통에서 오리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쉬웠습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는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20년, 25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청소년들은, 믿을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믿어야 할 이유를 가르치는 것은 피해가는 방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실험에 사용된 실험용 동물인 기니피그 같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신앙심을 가지고 천주교를 반대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영라이프에서 제가 사목을 한 지 3년째 되었을 때, 그 학교에서 가장 예쁜 한 젊은 여성에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물을 때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2년간 함께 일하면서 크게 부딪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놓고 형제가 서로 싸우듯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존경할 만큼 성장했고 대학 4년이 끝날 때쯤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마 그녀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겠지만 나에게 가장 멋진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기에 사람들 사이에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Seminary Years / 신학교 시절

결혼 한지 몇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신학교로 떠났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는 함께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 있는 고턴 콘웰 신학교에서 3년짜리 석사과정을 공부했고 아내도 2년 과정의 공부를 마치고 함께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톨릭 교회에 독한 앙심을 품고 공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신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성경이나 그에 관련된 책을 읽고 연구와 자료를 찾기 위해 헌책방을 뒤졌습니다. 아내 김벌리와 저는 3년 동안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되돌아보면 제 삶에 큰 획을 긋는 일들이 그 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벌리가 첫해에 들은 과목이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었는데 일 년전에 이미 제가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하게 했는데 그중 한 그룹은 낙태를 주제로 했고 다른 그룹들은 핵전쟁이나 사형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김벌리는 자기 그룹이 피임에 대해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하필 피임이야?"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클래스를 들었던 일 년 전에는 아무도 그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3명이 이미 신청을 했고 오늘 첫 모임에서 대표를 뽑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가 우리 연구 결과부터 발표했어. 그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개신교도이며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피임이 괜찮다고 알고 있다. 아니 I.U.D.와 같은 낙태를 유발하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피임을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다. 그들이 피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독신을 지키는 교황과 사제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이를 키울 필요가 없으면서, 천주교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야 사제와 수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논쟁은 김벌리에게 큰 도움이 못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최고의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는 아내 김벌리에게 나는 "글쎄, 당신이 혼자 해보고 싶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벌리는 이 문제를 혼자 연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도에서 만난 테리가 나에게 "당신 아내가 피임에 대한 흥미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피임에 대해 흥미있는 게 뭐예요?' 하고

은총은 생명이며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자 "당신 부인이잖아요. 직접 알아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내가 그녀에게 물었죠. "테리가 말하는 게 뭐야?" 그녀는 "1930년 까지는 교파를 막론하고 개신교는 모두가 예외없이 피임을 반대했다는 것을 알아 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로마 천주교의 잔재들을 찾아내려면 몇 세기가 걸릴지도 몰라" 하고 말하자 그녀는 "그런다 해도 난 그것에 대해 알아 볼 거예요." 하고 말했죠. 그리고 한 주일이 또 지났을 때 테리가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논쟁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피임을 반대하는 게 나온다는 논쟁인가요?" 그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했고 저는 그런 주제는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야겠어요. 직접 물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저에게 책을 한 권 건넸어요. 그것은 산아제한과 혼인계약에 관한 것으로 잔 키플리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다시 나온 것으로 "성과 혼인 계약"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수 차례 읽었고 성경전체에 걸쳐 계약은 주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계약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큰 흥미를 갖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책 제목에 있는 "피임과 혼인 계약"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봐 김벌리, 저자가 천주교 신자잖아? 날보고 천주교 책을 읽으라는 거야?" 했지만 그 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을 천주교 신자가 가로채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두 세장을 읽어가자 저자의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책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다시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혼인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혼인 계약을 갱신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에는 그 계약을 갱신하는 때가 있으며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며 은총은 생명이며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키플리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행위를 생명을 주는 사랑의 힘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혼인 계약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9개월 후에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할 아기를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인계약을 통해 만든 하나가 되는 것이 실현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인 계약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자" 하셨는데 세 분이 한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셨습니다. 둘은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된 표징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는 이 외에도 그 책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는 완전히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 성공회가 이 전통을 어기고 피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 모든 중요한 개신교회 교단들이 성의 혁명이라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근거 한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유일한 교단이 천주교회라는 사실이 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1960년과 70년대에는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피임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낙태에 대한 연방 지원을 승락했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피임에 타협한 내용들을 찾아내다가 나중에는 그 타협이 홍수가 되어 넘쳐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천주교는 2천년이 된 교회로서 무언가 옳은 것을 추구하고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집에서는 눈먼 바보도 도토리 하나는 찾아낸다는 말을 해왔는데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2년째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째인 마지막 해에 저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계약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는 신학자인 쉐퍼드라는 교

성경에 근거 한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유일한 교단이 천주교회라는 사실이 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단에서는 그의 과목이 이단이라고하며 그 교수도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쓴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계약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계약과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도 인간과의 계약과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한 거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는 계약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결혼과 창녀와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처럼 서로의 것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것은 너의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 분은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 후에 저는 'Am'이 히브리인에게는 사람을 뜻하는데 친척,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며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식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우리가 하느님과 가족이 되는 왕직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쉐퍼드 교수의 논문을 읽고 하느님과의 계약은 아들 신분의 계약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맞아"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왜 이단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쉐퍼드 교수는 '믿음만으로' 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도 안 돼,



그건 복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 가셨고, 나는 그분이 나를 구하셨다는 것을 믿는 단순한 진리이고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왜 그 교수가 믿음만으로라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당신의 글을 읽었는데 여러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은 루터의 '믿음만으로' 라는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까?" 쉐퍼드 교수는 루터의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제한시킨 것이어서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긴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진리들을 놓쳤

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모든 성경적 크리스찬과 개신교도들에게는 하느님이 판사이며 계약은 법정에서 범죄자를 심문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입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 의로워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구원은 법적인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오로는 분명히 구원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로마 법정이 아닌 히브리인들의 가족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판사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심판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처벌을 대신 받는 단순한 무죄한 희생물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의 수많은 형제 중에 말이시며, 가족 중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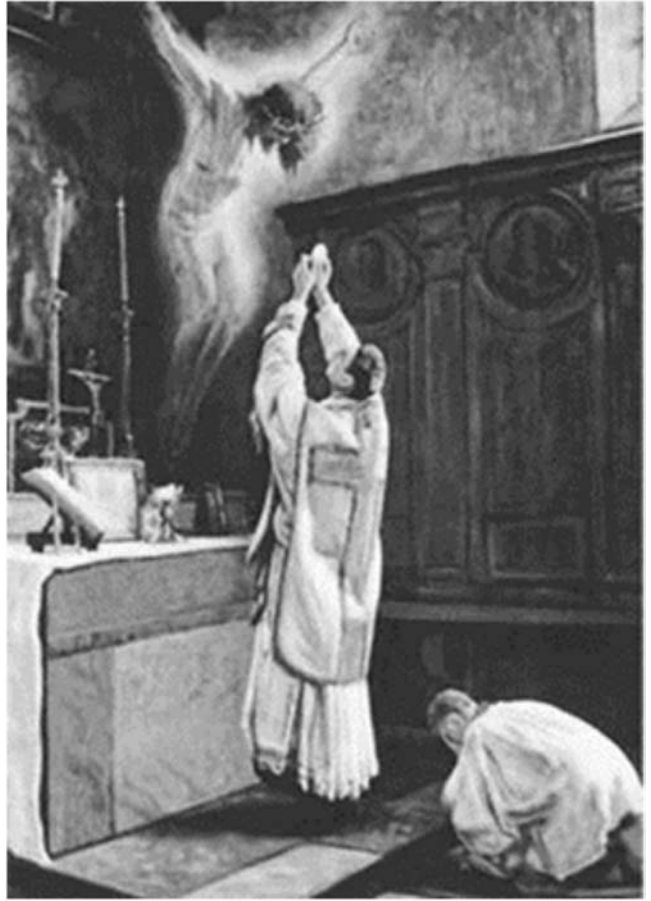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 분은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형이시고 우리를 도망간 탕자나 하느님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새 계약에서 법 적인 교환뿐 아니라 하느님 외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하느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구들과 나누자 그들은 "그래, 맞아, 그게 바로 오로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의 글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글에서 이러한 신념을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훈련시켰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어디에도 믿음 만으로라는 구절이 없으며 두 번 째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번역판에 로마서 3장에 "만으로" 라는 것이 그리스어 성경원본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삽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믿음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말로 된 거룩한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성경저자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는 영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오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가르쳤으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일하는 믿음 안에서 구원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애들아 너희들은 내 가족이고 네 친구들은 다 내 가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복종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희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던간에 상속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의 변화에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탁월한 교수인 잔 거스트너 박사는 한때 "만약 우리가 믿음만으로도라는 것이 잘못이라면 다음날 아침 나는 로마의 바티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속죄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웃기는 논리냐고 비웃었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짚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그 부분에서 모든 다른 교리가 나오는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확실히



게 알아야 하는 큰 숙제를 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계약신학이 탄생되고 발전시킨 곳이기 때문에 애버딘 대학교에서 계약 교리를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곳에서 계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제 박사 논문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장 이 문제 해결에 나설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김벌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가렛 대처영국 수상은 미국인이 그 나라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 년을 쉬면서 졸업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M**

(다음호에는 "Becomes Pastor of a Church in Virginia- 버지니아의 개신교에서 목사가 됨" 이 연재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많은 유혹을 받는 이들을 본적이 없다"

제 27차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대회 /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 \$2,750 (뉴욕 JFK) / 2016년 7월 29일~8월 9일 (11박 12일)

메주고리에 - 국제 청년대회 프로그램 전 일정 참여, 60여개국에서 온 젊은이들과의 만남, 체나콜로 공동체의 아와 뮤지컬 공연, 십자가 헌양미사, 성모님 발현산 십자가산과 14처, 아름다운 티할리나성모님, 청십자가, 부활 청동상, 빛의 신비, 전마약중독자들의 공동체 체나콜로 회원들의 체험담 목격증인 및 프란치스코회 강론, 메주고리에에서 변화된 이들의 체험담, 메주고리에 치유음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저녁에 절-묵주기도, 미사, 치유예절, 십자가 경배, 성체현시 성시간

크로아티아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 Dubrovnik, 목의 치유자인 브라시오 성인 성당, 1700년된 성 실바노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성당, 아기예수님의 강보와 성 십자가 조각 및 많은 성인들의 유물이 (130명이상) 모셔진 주교좌 대성당, 발칸반도의고대 유적 도시 자다르, 성아나스타시아 주교좌 대성당 및 고대 유적지, 크로아티아의 고대 유적도시 스프리트, 자다르(성 아나스타시아 주교좌 대성당 및 고대 유적지 방문), 파도의 오르간 소리, 플리트비체 대호수,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수많은 폭포로 연결된 16개의 호수로 유명한) 수 많은 숲 사이로 코르나 강이 흐르는 원시림의 풍경에 석회암 성분으로 인해 녹색과 에메랄드 빛이 나는 아름다운 경치의 호수, 자그레브 주교좌 대성당, 아드리아해 바닷가의 도시 리예카, 트르삿 언덕의 성모마리아 수도원 (지금은 이태리의 로레토에 있는 돌로 지워진 나자렛 성모마리아의 성가정 가옥이 있었던 곳), 1291년 5월 성가정 집이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옮겨졌다고 함, 성 비트 대성당 방문 등등 ...



문의 Tel. 201-945-4777 Cell : 917-626-4314 E-mail: qpmm.org@gmail.com /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무료보급과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체입니다.

절름발이 소녀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에 참석하고 치유되다.



Silvia Buso



(실비아가 타고 다니던 휠체어)

[실비아 부소는 16살 때의 큰 사고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불과 며칠 사이에 휠체어에 앉아 지내게 되었다. 모든 의학적 검사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메주고리에 목격 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에 참석하고 있을 때 실비아의 마비된 다리에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다. 실비아는 믿음의 선물은 그녀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23살이 된 그녀는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개하고 치유된 체험담을 전하고 있다.]

북부 이탈리아 파도바에 살고 있는 여학생 실비아는 2004년 10월에 불구의 몸이 되어 걸을 수도,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어서 휠체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비아의 고통은 2005년 6월 메주고리에 발현산에서 성모님께서 증인 이반에게 발현하신 직후, 별떡 일어 나 걸어감으로서 끝났다. 실비아 부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한 기도회에서 자신의 치유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다. "2004년 초까지 나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춤도 추며, 수영도 즐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의사들의 종합 검사

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휠체어에서 꼼짝못하게 되자 가족들과 나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 개월동안 체중이 감소되고 지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발작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기본적인 것까지도 제한받는 삶으로 인해 내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실비아의 어머니는 딸의 병이 치유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했다. 실비아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습관적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우리들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휠체어에 갇혀 살던 9개월 동안, 의사들에게 답을 듣지 못한 엄마는 신부님의 도움을 받으며 매주 금요일 복되신 성모님 기도회를 다니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따라 다닌 이유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성모성월인 5월이 되자, 매일 열심히 기도회에 참석해서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매일 기도하는게 힘들었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나에게 기도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를 압박하는 무서운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비아가 메주고리에 간 것은 사고를 당하고 치유받은 것만큼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실비아는 이렇게 말했다. "6월 20일, 물리치료사가 다음 주에 그녀의 어머니와 메주고리에 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로 출발해서 6월 24일, 세레자 요한의 축일 아침에 메주고리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성모님 발현 기념일이었습니다." 실비아는 발현산에서 목격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에게 성모님의 공개 발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휠체어를 타고 발현산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산에 갈 것을 결심했다. 여름에는 메주고리에 발현산에서 증인 이반에게 성모님의 공개 발현이 가끔씩 있었다. 2005년 6월 24일, 그곳에 참석했던 실비아는 별떡 일어나 걸었던 것이다. "내 옆에 앉아 있던 순례 가이드가, 잠시 후 성모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오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평생동안 휠체어에 갇혀 살아야 하는 두려운 삶을 평온 속에서 받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성모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정도 흘렀습니다." 실비아 부시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성모님께서 이반에게 발현하시는 시간에, 나는 왼쪽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흰색의 아름다운 빛, 큰 소리를 내는 빛, 그 빛을 바라보았지만 내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 보았을 때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고 눈을 아래로 떨구었으나,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동안 내 눈은 이 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현 후에, 실비아가 탄 휠체어를 들고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휠체어를 놓쳐서, 그녀는 발현산 언덕의 험한 바윗돌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그러나 실비아는 날카로운 바위돌에 부딪치는 대신 치유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날카로운 바위 돌위가 아니라, 마치 부드러운 침대 위에 몸이 누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나를 위로해 주는 매우 다정한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분 후,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비되었던 내 다리에 어떤 감각을 느끼며 내가 무엇인가에 기대어



있다는 느낌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치유됐어요. 이것 보세요. 걸을 수 있다구요!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가장 자연스런 일인 것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를 못해서 다리가 너무 가늘었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넘어지지도, 다치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 쯤, 실비아는 순례단과 함께 14처 기도를 하며 십자가 산을 올라갔다. 메주고리에서 돌아 왔을 때, 아직도 남아 있었던 통증이 사라진 또 하나의 메주고리예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었다. 실비아 부시는 계속 말했다. "나는 계속 병적인 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날이후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체험담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발작은 대개 낮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메주고리예에서 류보 신부님이 튜린의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류보신부는 메주고리예 주민들과 순례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실비아는 류보신부가 그녀

"하느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느님의 은혜와, 믿음과 회개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의 치유 과정에 도구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목주 기도를 바치며 자신이 치유된 체험을 증언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했다. "기도회를 떠나기 전에, 류보 신부님께서 안수해 주시며 강복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 나는 투약을 중지할 정도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비아는 완전히 치유되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느님의 은혜와, 믿음과 회개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 그 여정을 걷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시련도 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마치 하느님께서 내 안에 불을 놓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은 나무로 지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기도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길러 집니다. 그리고 미사, 성체 조배, 목주의 기도, 성경 읽기, 단식, 최소한 한 달에 한번 고백성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모든 것으로 불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체험입니다. 나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복되신 성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매일 더욱 더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M**

(<http://peace.new21.net>에서 발췌)

2016년 3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란다. 너희들이 진리로 가는 길을 찾고, 내 아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해,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너희를 찾아 오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오고 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싶구나.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말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당신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증명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나의 자녀들이 그분을 모르고 있으며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무관심하구나. 그들의 무관심이 내 마음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서 함께 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거룩함을 가져 오셨으며, 나에게도 인성을 받으셨다. 그분과 함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비추어 주고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내려 오셨다. 내 아이들아, 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뵈올 수가 있단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들을 통하여 뵈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도인 아이들아,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허영심과 이기심을 버리도록 하여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그분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뵈올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그분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 주겠다. 고맙다."

발현 목격증인 미리아나

"기도와 용서의 힘" "THE POWER OF PRAYER AND FORGIVENESS"

[다음 기사는 2015년 8월 5일 제 26회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 웨스티발에서 발표한 르완다 대학살의 생존자 Immaculee 자매의 체험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1994년 르완다의 내전중에 벌어진 후투부족들에 의한 투치 부족들의 인종을 말살하기 위한 대학살때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50만명이 학살된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 남은 그녀는 기도와 용서의 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제 고향이고 어머니 품속입니다. 저는 르완다 성모님 발현지인 키데호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주고리에 처럼 1981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된 르완다 성모님 발현은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성모님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대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러 오신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재앙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묵주기도와 고해 성사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성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오른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500,000만 명이 살해된 끔찍한 대학살 때에 하나님 은총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 남은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1994년, 대학생인 나는 부활절날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집에 있었지요. 그런데 4월 7일 수요일 아침, 오빠가 대통령이 지난 밤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부족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 생길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뉴스에서는 르완다의 두 개 부족 중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우리 부족의 수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경을 다 폐쇄시켜서 아무도 피신을 할 수가 없었죠. 대학살이 시작된지 이틀째, 부모님은 2남 1녀의 자식중에서 꼭 살아남기를 바라며, 저를 다른 부족인 부모님의 친구집으로 보냈습니다. 말없이 내 손에 묵주를 꼭 쥐어 주시는 아버지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도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이 목주를 손에 쥐고 성모님께 의탁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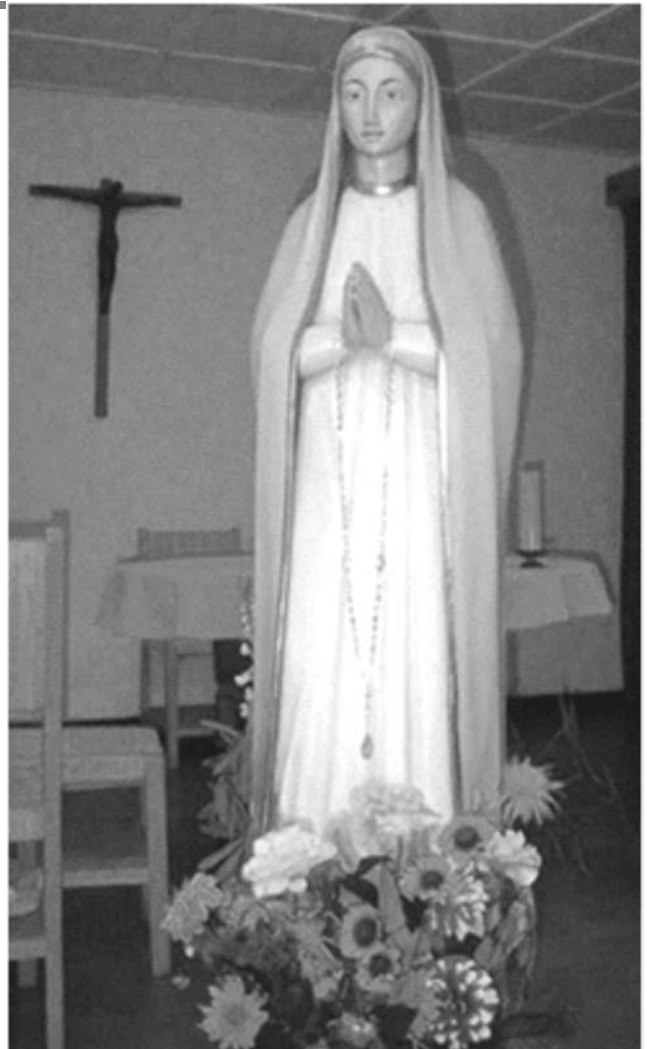
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이 목주를 손에 쥐고 성모님께 의탁하여라." 2, 3일 후에는 집에 올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못 볼 것같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워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곳에 있으라고 하셨다고 말했죠. 집주인은 가로, 세로 1미터, 1미터 반정도 되는 매우 작은 화장실을 보여주며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무 좁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5명의 여자 아이들이 들어오더니 잠시후에, 2명이 더 와서 총 8명이 됐습니다. 앉을 수도 없어서 한명이 일어나야 다른 한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몇 달을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불평은 절대 유익하지 않음과 시련을 겪을 때는 인내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집주인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서로 절대 말하지 말것과 화장실물도 내리면 안되고 음식은 식구들이 먹고 남은 것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포함된 우리 8명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몇달을 숨어 살아야했습니다. 악몽같은 일주일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족과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 때문에 내 온몸에 진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군인이 되어서 국가 전역에 폭탄을 터뜨리고 우리 부족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밖의 소식이 궁금해서 라디오를 틀어 달라고 부탁하자, 집주인이 3개의 라디오를 각각 다른 채널에 맞춰서 문밖에다 틀어 주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끔찍한 대학살의 현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부족의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족들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죽여야 한다. 뱀의 새끼들도 뱀이고, 바퀴벌레의 새끼들도 바퀴벌레이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도 모두 죽여야 한다!" 정부가 우리 부족을 찾아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자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우리들을 수색하느라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끌고 와서 큰 경기장 안에 몰아



넣고 수류탄을 터트려 마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없는 천국이 올거라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들이 숨어있던 집을 찾아왔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장실 작은 창문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나나 나무껍질로 된 옷을 입고 마쇼티라는 납적한 칼과 창 등등의 무기를 손에 들고 우리가 숨어 있는 집을 수색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면 당장 죽일 것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그들이 싫어하는 부족이라는 것만으로 죽어야 한다는 현실을 저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마음 속으로 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다 끝장이야. 문을 열어라. 이곳에 있는게 너무 힘들지 않니? 문을 열어버려라." 그런데 다른 선한 음성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안된다.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다. 그들이 너를 찾더라도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기도하여라"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과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은 없어. 기도를 듣거나 하시나? 그래도 너무 늦었어. 저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너희를 찾으면 죄가없는 데도 죽일거야." 혼란속에 방황하는 나에게 또 다른 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면 안된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말씀드려!" 나는 하느님이 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느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죠? 제발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무참하게 죽여 버릴거예요. 제발 도와 주세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방 4개 짜리 작은 집안을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수색하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의 공포속에서 거의 5시간 동안 숨도 못쉬고 있을 때, 화장실 문앞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당장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혼절상태가 된 우리를 보며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집을 수색하던 400명이 모두 떠났다." 그들은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집 주변을 큰 원형으로 둘러싸고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레쉬를 들고 지붕위로 올라가서 수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침대 아래와 옷장속을 살피고, 혹시나 어린애들이 숨어 있을까봐 큰 여행가방들도 모두 열어 봤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찾지 못한 그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숨어 있는 화장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집주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겠지요? 당신도 우리 부족이니까 좋은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나는 살았다는 것보다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한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시구나! 화장실에서 한 내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어! 내 마음속의 기도를 모두 들으셨다구!" 하느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마음 속에도 계시다는 신부님 강론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음 안에도, 생각에도,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린 아무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살인자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을 어떻게 할 모르겠다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숨어 있던 집주인에게 성경책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찾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묵주기도를 하는 25분동안 두려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마치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다시 지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들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찾아서 강간하고 결국은 조각내어 죽일 것이



1981년 11월 28일 르완다에서 발현하신 성모님

다. 살더라도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묵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주기도를 5단씩 매일 27번을 하고 잠을 못 이룰 때는 자비의 기도를 40번씩 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나의 피신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앉지도 못하고 숨어 있으려니 하루종일 일한 사람처럼 온 몸이 피곤했지만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묵주를 손에 쥐고 새벽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내 마음속의 작은 것들을 바꿔 주었습니다. 전에는 나쁜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묵주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묵주기도를 하니 매일 200번의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당신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순간 사랑이나 미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서 용서하시는 것 처럼 나도 우리 부족들을 학살한 살인자들을 용서하라고요? 말도 안됐습니다. 증오심에 모두 다 지옥에 가라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에게 잘못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말 할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는 법을 몰랐기에 나는 용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들을 잃게 됩니다. 나는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서 진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빼버리면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었죠. 성모님께 특별히 제 마음을 봉헌한다고 기도했죠.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즉시 유희를 받았습니다. 성모송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과 부족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악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음성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여라." 저는 깨달았죠. 하느님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주님의 기도를 빼고 기도하던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네 맘대로 바꾸면 안된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말씀드려라.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지말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해 보아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내가 청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거야" 화장실에 숨어 살은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서로 말도 할 수도 없었던 우리는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숨어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성경책과 목주 하나였고, 기도는 제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숨어 있는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 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자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어느 날, 고통의 신비 5단을 묵상 중에는 예수님이 못박혀 계신 십자가를 내가 끌어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잖아, 그분의 어머니도 함께 계시잖아. 얼마나 아프고 힘들셨을까? 최소한 내 어머니는 나의 고통을 모르시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텐데 나는 이렇게 숨어있잖아?"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우리 부족들을 죽이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묵상중에 느꼈던 십자가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목주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는 제게 새로운 힘을 주는 기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증오하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그 일의 결과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오직 증오심에 눈이 가려져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저 사람들을 미워하니?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흙에 진흙을 더할 뿐이야. 그러나 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이 바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행동하지만

여러분이 증오와 분노를 선택하면 르완다의 대학살과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확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고해성사도 자주 보지만 언제나 저는 죄를 짓고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です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변할 수 있다는 기도의 힘과 능력도 배웠습니다. 그 살인자들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큰 돌덩어리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랑과 미움 두 길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사랑의 길? 아니면 미움의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길에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테레사 성녀,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



움의 길은 히틀러, 살인자들, 증오심에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사랑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델라처럼요. 이 분들은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 항상 사랑과 진리를 지켰습니다. 제 우상인 이분들은 아무리 악한 죄인들도 회개하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인들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속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니, 세상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들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좁은 화장실 안이었지만 용서를 하니까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집 주인의 도움으로 불어와 영어 사전을 구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르완다 국가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목주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분에게 의탁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어 있던 화장실에서 나온 첫 날, 저는 난민 캠프로 갔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모두 나라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르완다 대학살에서 살아난 우리 부족사람들과 온건파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난민캠프에 도착하자 부모님을 찾았으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들에게 살해된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와 남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와 삼촌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포함하여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500만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아버지가 주신 목주와 3개월 동안 입고 있던 악취에 절은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목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성당에 오너라, 기도하여라.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끝났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여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너는 모른다. 나에게 의탁하여라"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시간이 단 하루 혹은 일주일, 일년이나 몇년 일수도 있지만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짧더라도 선물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입니다. 그 선물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나쁜 일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각자의 선



"세상은 큰 재앙의 벼랑에 서 있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피난민 캠프에서 몇 달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분이 제게 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휠 체어를 타고 계신 자매님이시죠. 저는 지금도 하느님께 편지를 쓰는데요. 난민캠프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우리 어머니를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가 그 분이 어려울 때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무엇인가 도와야 한다고 피난민 10명을 집으로 데려가고 제게도 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와 자애의 행위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축복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고 클 것입니다.

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통중에 울고 있을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러니 눈물을 닦고 일어나거라. 너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아라."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살해되어 정신 줄을 놓아버린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팔을 잃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음식을 주며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사랑이나 미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증오와 분노를 선택하면 대학살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U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UN은 수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어떻게 대학살을 없앨까? 어떻게 전쟁을 없앨까 하고 대단한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하게 있습니다. 돈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날마다 스스로가 선택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후에 크게 성장합니다. 1998년에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을 미국에서 보낸 후에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 갔을 때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은 수감소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넌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거야. 너는 지금 행복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잖아?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뺏아간 그들인데 어떻게 그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하면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정말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시던 멋쟁이였지요. 그런데 그 때는 교도소에 갇힌 죄수였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머리도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보기에 정말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한지조차 모른다.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토록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주어라."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그 분이 저지른 죄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랬습니다. 그사람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저

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측은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 마음 속에서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목주를 꼭 잡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르완다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끔찍한 대학살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완다 성모님 발현은 교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메주고리에 오셔서 당신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십시오. 언제나 자녀들이 잘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께 순명하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 안에는 큰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나쁜 결정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시대에 있다면 이 세상은 제가 르완다에서 겪었던 대재앙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은 지향을 갖고 계신 몇몇 분들이 좋은 결정을 한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M**



고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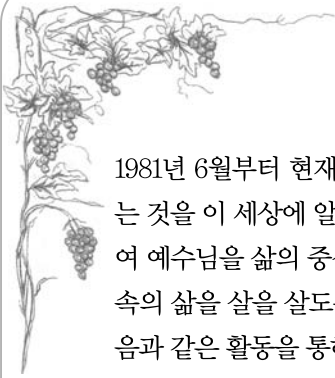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은 결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사용만 잘하면, 특히 당신이 그 고통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봉헌했을 때는 크나큰 사랑의 수단이 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나누어진 고통은 대단한 선물이 되며 그것은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인 은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아픔, 슬픔, 모멸,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입맞춤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입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꼈을 때는 이제 다가올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슬픔으로 채우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큰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결코 채우지 않게 하십시오.

- 마더 데레사(작은 몸짓으로 이사랑을 중에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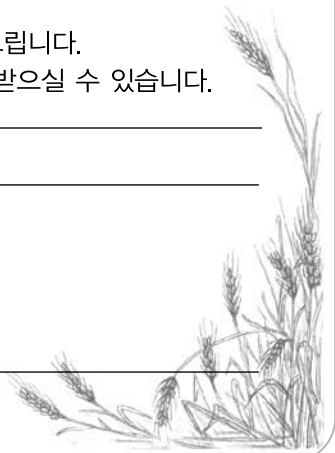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성모님의 발현 목격증인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안내

국민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카톡 평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제 72호 발행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아그네스, 강윤순, 권승희, 김건일, 김귀녀, 김동수, 김동현, 김로사, 김마데라,
김마리아, 김마르타, 김막달레나, 김말숙, 김선하, 김성옥, 김세록, 김소영, 김수,
김수진, 김숙자, 김순홍, 김안나, 김양희, 김영수, 김영숙, 김영자, 김유스티나,
김은숙, 김재문, 김정숙, 김정자, 김창오, 김추자, 김희강, 김희주, 도루시아, 류기열,
류숙자, 문남윤, 문로사리아, 민병돈, 민성기, 민혜레나, 박난정, 박모니카, 박마르타,
박막시밀라, 박사라, 박수미, 박안나, 박영순, 박영화, 박유미, 박정자, 박재희, 박초희,
박초선, 박캐티, 박크리스티나, 박혜옥, 배마리아, 백낙현, 백광현, 백안셀모, 빈용식,
서그라시아, 서효심, 성시용, 성인희, 송마리아, 송막달레나, 송미숙, 신길순, 신미정,
신태남, 신헌철, 안경희, 오세완, 유글라라, 유바올라, 유미경, 유미영, 유요셉, 유춘옥,
윤금순, 윤예선, 이경매, 이경희, 이남, 이동우, 이동희, 이로사, 이명진, 이문자, 이베로니카,
이분숙, 이상빈, 이선주, 이성숙, 이순세, 이순화, 이승희, 이영애, 이영옥, 이옥영, 이윤영, 이윤철, 이인순, 이재권,
이종천, 이준모, 이준영, 이찬기, 이창호, 이한솔, 이호기, 이현숙, 임계자, 임마리아, 임세레나, 장금옥, 장보형,
장세실리아, 장영희, 장윤경, 장윤희, 장케롤라인, 장정희, 장종순, 장한순, 전현숙, 정윤, 정승연, 정안나, 정은원,
정정숙, 정재은, 제임스배, 조광자, 조동진, 조병옥, 조숙진, 조안나, 조주란, 조진자, 지니킴, 지어거스틴 & 글라라,
진도미니카, 진스텔라, 차세실리아, 차순구, 최경숙, 최덕희, 최두옥, 최성구, 최숙희, 최은복, 최정신, 최혜선,
최희순, 편영옥, 표레지나, 표현경, 하기미, 한만성, 한모니카, 한서연, 한서예, 한수지, 한자영, 한정순, 한주용,
홍경숙, 홍성심, 홍수원, 홍연수, 92차 성지순례단,

Luke Y. Sunwood, Rigoni Lisa, Paul & Mary Lee, Peter Park, Michelle Lee, Su H. Jones, Henry Yerger,
K. Larcenaire, Son Young Moore, Eileen Cho, Sang S. Goode, Philip Chung, Teresa Sung, Yin & Kyung Rhee,
Brock Suji, Meredith Soon Cha, Young Kim, Lake Chong, Tak U. Lee, Dardy Chong Suk, Chung Shendelman,
Wendy Na, HyungJoo, Mee R. Kang, Sun Lamb, Myung Paul, Jesse M. Ahn, Joseph Song, Cindy Hwang,
Jeannie Cunningham, Pyong Mullen, Huisuk Moonpak, Curtis Pak, Paul Ryou, Yon Johns, Sun J. Valenta,
Mullins Insuk, Ziegmann Cynthia B, Ziegmann Matthew, Ruoff Anne Louise, KlenkePok Kyong



성모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는 것

'원죄없으신 성모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로
나아가 성모님을 닮은자가 되며 온전히 제한없이 성모님의 소유물이 되는것,
또 성모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전존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 맥시밀리안 콜베 성인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6년 성지순례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발행과 무료 보급 및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문의 : 201-945-4777 / CP 917-626-4314 / qpmm.org@gmail.com / www.qpmm.org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하는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

\$2,750 (뉴욕 JFK 출발) / 2016년 7월 24일~8월 2일

제 27차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대회 발칸반도의 드브로브닉/ 자다르/ 리에카 / 폴라 / 자그레브/ 플리츠바체 대호수/ 메주고리에

2016년 7월 28일~8월 9일 (12박 13일)
순례비 : \$2,850 (뉴욕 JFK 출발)

자비의 희년 전대사 및 성모님 발현지 순례 이태리/ 파티마/ 바르셀로나/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5개국 성지순례)

2016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 (13박 14일)
순례비 : \$3,750 (뉴욕공항 출발)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5주년 드브로브닉/ 슈르만치 / 메주고리에

2016년 9월 4일~12일 (8박 9일)
순례비 : \$850 + \$860 (뉴욕 출발 항공료)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35주년 드브로브닉/ 슈르만치 / 메주고리에

2016년 10월 31일~11월 8일 (8박 9일)
순례비 : \$850 + \$710 (뉴욕 출발 항공료)

** 일정은 항공료를 직접 구입하여 선교회
순례안내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기의 항공료는 2월 27일자에 인터넷 공식
가격이며, 구입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